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오른쪽 첫째)이 12월 8~10일 직접 김장에 나선 모습.


12월 9일 미소원 법당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

나눔으로 한 데 모이니 동장군도 '주춤'

부산 불교계, 겨울 앞두고 나눔의 장으로 '훈훈'

범어사, 김장김치 복지기관 11곳에
미소원, 결핵환자 위해 음식 나눔도
고시생 위한 나눔 천불정사까지

부산 불교계서 다채로운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상은 복지기관서부터 국립마산결핵전문병원 환자, 고시생 등 종교·지역에 구분이 없다. 방법도 다양하다. 김장김치 뿐 아니라 쌀, 후원금, 장학금 그리고 음식까지 총 동원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2월 8~10일 설법전 옆 마당서 총 5,000포기 김장김치를 담갔다. 범어사 김장은 1년 동안 대중공양으로 제공될 뿐 아니라 나눔을 위한 정기 행사다. 범어사는 10일 김장 김치 중 800포기를 사회복지법인 범어 산하기관 8곳과 재단법인 범어 청소년동네 산하기관 3곳에 전달했다.

특히 3일 동안 주지 경선 스님이 직접 참여해 대중들을 격려했다. 경선 스님은 오관게를 설명하며 "정사양약 위료형고 위성도업 응수차식(正思良藥 爲療形枯 爲療形枯 爲成道業 應受此食)이라고 했다. '밥 먹는 것을 약으로 여기고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도업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공양을 받는 것이다'란 뜻이다. 도를 이루기 위한 공양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며 "작은 울력이라도 함께 하고 나눔으로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격려했다.

(사)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은 계를 지키며 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2월 9일 법당서는 돼지고기를 자르고 담았다. 그 양이 100인분이 넘는다.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다. 홍시를 갈아 넣어 속을 버무린 맛깔스런 김치와 최고급재료로 마련한 음식들이 봉투에 차곡차곡 담겼다. 이 모든 음식은 다음날 방문할 결핵 전문 국립마산병원 환자들을 위해서다. 결핵환자들의 완쾌를 발원하며 영양 높은 음식을 준비한 것. 미소원은 결핵 환자 뿐 아니라 주변에 독거 어르신과 소외 이웃을 위해 더 넉넉하게 마련했다.

미소원은 1989년부터 매년 12월 2째주에 국립마산병원을 방문한다. 갈 때마다 팥떡, 수육, 김장 김치, 과일, 후원금 등 푸짐하게 준비한다. 특히 국립마산병원을 찾는 특별 봉사팀도 구성돼 매달 무료안경 맞춤, 이미용 서비스 등 다양한 봉사를 실시, 환자들의 손발이 돼주고 있다.

강순희 국립마산병원 봉사팀장은 "그분들이 쾌차하길 바라는 심정으로 한 달에 한번 병원을 방문한다"며 "이번에는 미소원 식구들이 함께 준비한 공양 드시고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불사도량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12월 10일 동네잔치를 베풀었다. 부산대 인근에 위치한 천불정사는 10년 동안 부산대 고시생들을 위해 사찰 내 기숙 및 학습공간인 '고담정'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2007년부터는 행정고시 준비반인 '신목정'에 매년 1,000만원 총 1억 원을 지원했다.

행사 당일엔 2016년 행정고시 합격자 전성민·허라윤·박은경 학생이 직접 주지 고담 스님을 뵙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 천불정사는 합격자들을 축하하며 점심공양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과 지역민을 초대해 전승렬 학생 외 4명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장전3동에 불우이웃 돕기 백미 50포 1000kg을 지원했다. 천불정사는 연중 기도 정진 회향을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고담 스님은 "바른 인재가 곧 사회를 밝게 한다. 인재를 위한 나눔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회향은 곧 사회에 큰 힘이 되는 밑거름"이라며 "부처님 자비심 실천은 따뜻한 세상, 더불어 가는 세상에 핵심 진리"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광명사 일주문 낙성 '시민 위한 안식처 발원'

12월 12일, 사부대중 2000여명 염원 모아

부산 광명사(주지 월장)는 12월 12일 '일주문 현판 제막식 및 낙성 법회'를 신축 일주문 앞에서 봉행했다. 이를 계기로 광명사는 일주문을 해탈성불의 소식을 전하는 문으로 알고, 정진 도량으로 도약할 것을 천명했다.

일주문은 높이 10.5m 연면적 20평(66.33㎡) 규모다. 형태는 다포식 5량가 맞배집 양식으로 웅장한 용모를 선보였으며, 화강석을 가공해 설치한 기단과 연꽃문양 연화문 초석이 자리 잡아 화미의 정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주문은 지난 8월에 기공식을 시작해 약 4개월 공사기간을 거쳤다.

낙성식은 △테이프 컷팅 △현판 제막식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경과 보고 △표창패 수여 △개회사 △법어 △치사 △축가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사는 일주문 낙성에 참여한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표로 윤종열 광명사 고문, 이창욱 광명사 신도회장, 이호목 신도회 부회장, 노성운·전순선 재무 부장에게 각각 표창패를 수여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문 밖은 세속이요. 문 안은 불국정토이니 이 문을 들어설 때 오직 일심으로 귀의하라. 일상에서 보면 삼라만상이 둘이 아니니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생사와 열반 또한 둘이 아니다. 이 문을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실상묘법의 초상승 진리를 깨닫고 잃었던 본바탕을 되찾으라"고 법어를 전했다.


부산 광명사가 12월 12일 '일주문 현판 제막식 및 낙성 법회'를 신축 일주문 앞에서 봉행했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일주문 불사의 의미는 미혹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해탈성불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며 "불사의 공덕이 우주 법계에 넘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량에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주지 월장 스님은 "일주문을 건립한 공덕으로 광명사 불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일심청정 관음정진 수행에 더욱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며 "일주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가 법의 향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신나는 힙합무대에 불교도 'Swag'

제1회 '2016 컨페티션&힙합콘서트' 대상 불도저 팀

제1회 '2016 로얄비츠 컴페티션' 대상이 발표됐다. 동아방송예대 소속 '불도저' 팀이다. 5명의 여성 멤버로 구성된 불도저는 대상 수상의 기쁨을 만끽하며 뜨겁고 격렬한 무대를 채웠다. 그리고 대회장인 원허 스님에게 신나는 발걸음으로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스님을 뵈면 공손히 합장으로 예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허 스님은 반갑게 그들의 손을 잡는다. 이렇게 벽을 허무는 것, 이번 행사를 주최한 혜원정사 원허 스님의 포교법이다.

로얄비츠 페스티벌(대회장 원허)이 12월 10일 오후 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서 처음으로 열렸다.

랩과 댄스 등 청소년과 청년들의 소유물로만 여겼던 분야에 불교가 손을 내밀었다. 대회 전 전국에서 예선에 참가한 팀만 800여 개다. 치열한 예선을 넘어 찾아온 15개 팀은 댄스, 보컬, 랩 등으로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이날 대상은 '불도저'에게 돌아갔으며 △댄스 부문 1위 미니멀리스트(19·아현산업정보고) △랩 부문 1위 MuSchiz 허석무(26·EDPD) △보컬 부문 1위 정연경(24·투산타워) △인기상 보컬 장성수(23) 등이 수상했다.



제1회 로얄비츠 페스티벌 대상 수상팀 '불도저'와 대회장 원허 스님.

불도저 팀은 "무대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기대를 못했는데 좋은 결과를 받아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원허 스님은 "불교색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순수하게 후원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며 "꿈을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로 청소년을 위해 매년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송년의 밤 개최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는 12월 12일 부산 코모도호텔서 '2016년 송년의 밤'을 열고, 한 해 동안 가르침을 준 승가와 동참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진〉 이날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앞으로 포교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대성 회장은 "2016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모든 회원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다음 정유년에는 역대 회장의 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초심을 지키고 불교 홍포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경선 스님은 "회원 불자들의 노력이 불도 부산을 빛나게 한 원동력"이라며 "모두 올 한 해 고생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스님은 법문에서 "2016년을 회향하며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얘기를 나누고 듣는 각자의 마음자리를 보면 모두가 존귀하다.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며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발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聯·신세계안과 MOU 체결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2월 9일 서면신세계안과 5층 신세계문화 나눔터서 신세계안과(원장 허준)와 '의료나눔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앞으로 신세계 안과는 불교계 의료나눔 활동에 이바지하고 의료기술을 승가와 재가자를 위해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이번 협약은 스님과 재가불자에게 큰 의료혜택이 될 것"이라며 "승보공양에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사무총장 정산 스님, 사무부총장 동암 스님, 능후 스님과 신세계안과 허준 원장 등이 참석했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소원을 이루는 크리스탈 칼라 테라피

소원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실하지 못한 동기(부족함 때문)
② 타이밍이 맞지 않아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달라진다.

8주완성

(색) 칼라의 힘

■ 1교시 :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칼라공부
붉은색 :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노랑색 : 예전의 두려움, 전생부터 짐져온 불안 초조 (내면에 숨어있다)
■ 2교시 : 정확하고 재미있는 아주 쉬운 숫자로 보는 사주
■ 3교시 : 다가올 건강을 지적해주고 성형을 지적, 상담해 줄 수 있는 관상학

자기 자신을 먼저알고 자신의 기운을 먼저 바꾸고
상담해 주는 당신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상담문의 : 010-5658-2657


김소희세프
고운사 사찰음식체험

천년 솔 향 가득한 사찰음식전문 특화사찰

고운사 템플스테이 '찰나에 알아차림과 쉼!'

■ 일반 프로그램

천년 솔향을 맡으며... **찰나에 알아차림과 쉼!**을 통해
휴식, 재충전의 기회를 화엄도량 고운사에서 가지세요.

-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체험형**) : 타종체험, 예불, 108배, 참선, 선체조, 단주만들기, 송림 숲 걷기 명상, **사찰음식체험**(둘째날 점심) 등
  ▷참가비(1박 2일) : 성인 – 6만원, 학생 – 5만원
- 솔향을 찾아서..(**휴식형**) :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참가비(1박 2일) : 성인 – 5만원, 학생 – 4만원
- 참가자를 위한~(맞춤형 **당일체험**) : 명상, 단주만들기, 스님과 차담 등
  ▷참가비 : 1만원 ~ 3만원(프로그램내용에 따라 협의)

※ 사찰음식체험은 5인 이상일 경우 가능, 휴식형, 당일체험은 재료비 별도

■ '가는해 오는해' 템플스테이

묵은 것을 버리고 2017년 새해를 산뜻하게 출발하세요.

- 일 시 : 12월 31일 ~ 1월 1일

주요 프로그램 : 고민과 갈등 적어 태우기, 연꽃 등 만들어 소원지 달고 탑돌이, 제야의 종 타종체험, 해맞이, 떡국먹기 등

- 참가비(1박 2일) : 성인 – 5만원
  학생 – 4만원

문의 : 054-833-6933 www.gounsa.net